투어 번호
LKYVQBCHVP

문화, 야생동물 및 자연 (8일)

8일 · 7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8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문화 심장부와 산악 지역, 저지대 강을 연결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기사가 있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문화삼각지대에서 출발하여 담불라 동굴 사원, 아누라다푸라와 미힌탈레의 고대 도시,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방문하고, 미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저녁 사파리와 시기리야 근처 마을 체험을 즐깁니다.

이후 캔디로 이동하며, 마탈레의 향신료 정원에 들러 치아의 사원을 방문한 후 전통 캔디 댄스 공연을 감상합니다. 투어는 이어서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 람보다 폭포와 찻잎 공장에 들러 영국식 산악 휴양지인 누와라 엘리야에 도착한 후, 호튼 평원 국립공원에서 하루를 트레킹합니다.

마지막 구간은 키툴갈라의 켈라니 강에서 래프팅을 즐긴 후 콜롬보로 내려가 출발합니다. 이 여행은 고대 유적지, 국립공원, 고지대 경관과 야외 모험을 결합하여 스리랑카의 문화, 야생동물, 풍경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담불라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담불라로 이동하며, 그날 저녁에는 석굴 사원을 방문합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담불라의 황금 사원은 기원전 1세기에 지어졌으며,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고대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왕의 석굴과 대왕의 석굴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는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2 담불라 → 미힌탈레 → 아누라다푸라 → 담불라

스리랑카에 불교가 처음 뿌리내린 성지들을 둘러보는 하루로, 신성한 바위산 미힌탈레부터 폐허가 된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까지 탐방합니다.



미힌탈레 바위산

이곳은 데바남피야티사 왕과 마힌다 승려가 만난 곳으로, 스리랑카 불교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산기슭에는 수도원 유적이 남아 있으며, 마힌다가 머물렀던 석굴과 암바스탈라 다고바, 마하 스투파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Dennis Sylvester Hurd · CC0



아누라다푸라

이 고대 폐허 도시는 10세기까지 천 년 이상 수도로 기능했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불탑과 수도원 건물, 연못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바나라마 불탑, 스리 마하 보디 성수,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이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3 담불라 → 시기리야 → 민네리야 → 담불라

오늘은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방문하고, 인근 마을에서 생활상을 체험한 뒤 저녁에는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에 지어진 이 바위 요새는 카샤파 왕의 거처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방문객들은 색이 퇴색되지 않은 벽화와 가파른 계단을 지나 테라스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궁전 유적으로 이어지는 터널에 이르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인근 마을을 방문해 스리랑카 농촌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소달구지를 타고, 잔잔한 호수에서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며, 논밭 사이를 걷게 됩니다. 전통 요리 시범을 본 뒤에는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세 시간 동안 이어지는 저녁 사파리에서는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이곳에 대규모로 모여드는 코끼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4 담불라 → 캔디

캔디로 가는 길에는 마탈레의 향신료 농원에 들르며, 숙소 체크인 후에는 캔디 전통 공예와 춤 공연을 감상하는 저녁 시간이 이어집니다.



마탈레 향신료 농원

스리랑카 향신료의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약초 농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의 향신료와 그 효능,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장점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전통 문화 공연

저녁에는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염색 시범을 관람한 뒤, 불춤과 칼춤, 전통 캔디 춤과 북소리가 어우러진 한 시간짜리 캔디 문화 공연을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5 캔디 → 누와라엘리야

불치사를 방문한 후, 폭포와 차 공장을 거쳐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시내 투어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불치사(불사리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복도와 홀은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A.Savin · FAL



람보다 폭포

푸셀라와 인근에 위치한 람보다 폭포는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세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 옆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상단 구간을 볼 수 있으며, 중간 구간은 A5 도로에서도 보입니다.

A.Savin · FAL



차 공장 및 농원

차 농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실론 티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알아보고, 1824년 중국에서 처음 들여온 차나무부터 1850년대 제임스 테일러가 시작한 상업 농장에 이르는 산업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Adbar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

누와라엘리야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고산 휴양지였으며, 지금도 거리에는 오두막과 빌라,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이 남아 있습니다. 투어에는 빅토리아 여왕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6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도시락을 준비해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의 고산 초원을 걷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이 공원의 초원과 운무림을 지나면 월드 엔드 절벽에서 펼쳐지는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를 만날 수 있으며, 트레킹 중 고유종 야생동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7 누와라엘리야 → 키툴갈라 → 콜롬보

키툴갈라로 내려가 래프팅을 즐긴 뒤, 콜롬보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냅니다.



키툴갈라 래프팅

켈라니 강의 5km 구간을 따라 급류를 체험하는 래프팅으로, 철저한 안전 장비와 조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Jimfbleak at English Wikipedia · CC BY-SA 3.0

Day 8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BIA)

아침 식사 후,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culture-wilderness-and-nature-8-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